

특집

일본 홋카이도 대학을 가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北海道大學, Hokkaido University)을 가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北海道大學, Hokkaido University)을 가다

특집

홋카이도 대학과의 학술교류: 17th SNU-HU 공동 심포지움

2014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 17회 서울대-홋카이도대 공동 심포지엄(The 17th Hokkaido University-Seoul National University Joint Symposium)이 일본 홋카이도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와 홋카이도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이 심포지엄은 199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난 17년간 성공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두 대학 간 활발한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다양한 단과대학 및 학과를 아우르는 대규모 심포지엄으로 성장하였다. 이번 행사 역시 서울대학교의 성낙인(Nak-in SUNG) 총장과 홋카이도대학교의 야마구치 케이조(Keizo YAMAGUCHI) 총장을 포함, 총 200여명의 교수, 연구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 심포지엄의 총회는 대회 첫째 날 “개발도상국과 국제협력에 공헌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University’s Role in Contribu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으며, 홋카이도대학교 측에서는 오쿠무라 마사히로(Masahiro OKUMURA)교수가 “아프리카에서의 홋카이도대학교의 활동(What Hokkaido University has done and will act in Africa)”에 대해, 그리고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안상훈(Sang-Hoon AHN)교수가 “지식사회에서 개발협력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 재구축(Rebuilding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Knowledge Society)”에 대해 발표하였다.

오쿠무라 마사히로 교수의 기조강연은, 홋카이도대학교가 아프리카 잠비아 공화국의 수도 루사카(Lusaka)에 설치한 분소에서의 활동에 대한 것으로, 특히 홋카이도대학교의 수의과대학이 잠비아 대학의 수의과대학(the Samora Machel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Zambia)과 교류하면서 어떠한 발전적인 관계를 맺어왔으며, 어떠한 성과를 낳았는지를 매우 인상적으로 소개하였다. 안상훈

• • •
이형진

前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교수

교수의 기조강연은 서울대학교의 글로벌사회공헌단의 활동에 대한 것으로,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소개하였다.

“세계화 시대의 교수 · 학습법 지원 전략” 세미나

대회 둘째 날에는 총 18개의 분과 세션이 단대별, 학과별로 진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홋카이도대학교 고등교육원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igher Education)과 함께 “세계화 시대의 교수 · 학습법 지원 전략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발표내용	강연자	소속
Keynote Speech(HU)	Prof. Toshiyuki HOSOKAWA	HU
Introduction to Nitobe College	Prof. Tomoko KAWABATA	HU
Introduction to Nitobe School	Prof. Yasuhiro YAMANAKA	HU
Activity of the Academic Support Center	Dr. Masahide SHIMIZU	HU
Cooperated Learning System by Seven Universities	Dr. Takayuki KOIKE, Dr. Kenichi YAMAMOTO, Mr. Tetsunoshin FUJII	HU
Writing Programs for Foreign Students	Prof. Hyung Jin LEE	SNU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English-mediated Classes in SNU for the Era of Globalization	Prof. Heewon LEE	SNU
Closing Speech(SNU)	Prof. Deogsu KIM	SNU

카와바타 토모코(Tomoko KAWABATA) 교수는 홋카이도 대학생들을 국제화시대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새롭게 시작된 “니토베 칼리지”에 대해 소개하였다.¹⁾ 이 프

1) 니토베 칼리지 및 니토베 스쿨은 홋카이도 대학 출신의 사상가이자 교육가인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의 이름을 따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메이지 시대 및 다이쇼 시기 에 걸쳐 활동한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주의자로, 일본의 여러 제국대학교에서 식민지 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친 식민주의자이기도 했다

로그램은 매년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부 1학년생 중 120명, 학부 2학년생 중 80명, 총 200명) 해당 학생들이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별도의 수료증을 수여하는 제도로, 해외 대학에서의 수학 기회 부여 및 일본학 수업과 타문화 이해를 위한 수업 이수, 자원봉사/인턴 프로그램과 현장학습 프로그램 참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니토베 칼리지 소속 학생들을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인재로 양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서 야마나카 야수히로(Yasuhiro YAMANAKA) 교수는 대학원생을 위한 “니토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였다. 홋카이도 대학의 ‘니토베’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의 국제화 프로그램과도 유사하나, 소수의 학생들을 미리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홋카이도 대학의 ASC(Academic Support Center)는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지원부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로 학생들을 위한 튜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다. 시미즈 마사히데(Masahide SHIMIZU) 박사는 ASC에서 제공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ASC에 소속된 4명의 교원은 전 교과목에 걸쳐, 그리고 16명의 대학원생 튜터는 수학, 물리학, 화학(생물학), 영어 등의 교과목에 대해 일대일 지도를 하는 방식이었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다른 점은 학습지원이 주로 이과의 기초교과목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쓰기’와 관련된 지원은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서울대학교 CTL 이형진 연구교수는 글쓰기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였다. 서울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3년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학부 854명, 석사과정 1,093명, 박사과정 759명으로 총 2,706명에 달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총 재학생의 16.4%를 차지하였다. 이를 외국인 학생들 중 한국어 강의를 수강하면서 한국어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게 되면서, 이들의 한국어 글쓰기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최근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글쓰기교실에서 최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된 내용이었다.

서울대학교의 CTL 이희원 연구교수는 2014년도 서울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어강의(EMC English-mediated classes)의 현황 및 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 그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영어강의 현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 분석자료와 학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정리하여 제

시하였다. 또한 앞으로 서울대학교가 영어강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개선점 등을 제안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홋카이도대학교 고등교육원(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igher Education)과 지난 십 여 년 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 역시 상대 대학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